

럿셀氏의 財産論과 感想(제6회)

高永煥

萬一 現代의 産業制度가 이대로 繼續될 것 같으면 生産을 極도로 增大하라는 目的은 長久한 동안에 到底히 成就되지 못할 것이다. 現代의 經濟組織은 一部는 勞動者の 健康과 能率을 耗損하는 故로—특히 婦人과 少年을 使用하는 境遇에—또 一部는 最良한 勞動者들은 小數家族을 願하는 傾向이 있는 事實과 및 가장 文明한 人種들은 漸々 衰退하는 危境에 瀕在한 事實 새문으로, 過度히 人間의 肉體를 耗損한다. 今日의 모든 大都會는 다 人間 潰滅의 中心地다. 例를 런던에 들것 같으면 스미스氏는 詳細한 統計的 事實을 들어 論難하였는데, 그것이 다른 都市에 對하야도 同樣일 것임은 殆히 疑訝할 餘地도 없다. 또 如上한 事實은 物質的 財貨에 對하야도 同樣이다. 卽 鑛山, 處女林 又是 世界 中 새로 開拓된 小麥田 等이 明日을 不計하는 濫用으로 荒廢하게 되야 殆히 그 子孫에게 遺傳할 수 없게 된다.

社會主義者들은 斯弊를 救濟하기 爲하야 公平한 分配制度和 가치 土地 및 자본의 國有를 主張한다. 實際에 今日의 分配制度는 各 方面의 點(正當한 點을 包含한)으로 보아서 辯護할 餘地가 없는 것은 否認치 못할 事實이다. 現今의 分配制度는 法律에 依支하야 規定된 것이나, 吾人이 너무 該制度에 對하야 慣習된 故로 如何든 自然的으로 不可避하게 되는 各點에 對하야도 더욱 改良을 要한다. 吾人은 私有財産에 關하야 一般이 承認된 法律上 權利의 主要한 原因을 四個로 區分할 수 있다. 卽

第一, 사람 自己 自身이 製造한 것에 對한 權利

第二, 貸與한 資本의 利益에 對한 權利

第三, 土地에 對한 所有權

第四, 相續財産에 對한 權利 等이다.

斯等의 것에 對한 尊敬의 程度를 볼 것 같으면 資本을 勞動보다 더 尊敬하며 土地는 資本보다 더 尊敬하고, 富의 形式으로 볼 것 같으면 相續바든 富를 自己의 努力에 依하야어든 富보다 一層 더 尊敬한다. 自己 自身の 努力

生産에 對한 吾人의 權利는 實際에 法律上 承認된 範圍 程度를 越어나지 못한다.

初期의 社會主義者……特히 英國에 대한 맑스派[마르크스] 社會主義의 先驅者들은 恒常 이 權利를 公正한 分配制度의 根本基礎와 갖치 力說 主張하나, 그러나 發達된 複雜한 近代社會에 잇서々는 엇던 一個人이 무엇을 生産하얏는 것을 明言하기는 不可能한 것이다. 鐵道로 運搬한 貨物의 엇던 程度까지가 그 貨物을 下陸식인 人夫의 所有에 歸할 것인가? 又是 엇던 外科醫가 手術을 함으로 엇던 사람의 生命을 救濟한 境遇에 그 救濟 當한 사람이 後日에 生産한 貨物의 엇던 程度까지가 그 外科醫의 正當히 要求할 수 잇는 點인가? 斯等의 問題는 到底히 解決할 수 업는 것이다. 設或 是等의 問題가 解決된다 할지라도 自己의 生産한 物品은 바로 自己의 所有에 歸한다는 正義는 업다. 或者는 他者보다 더 强하며 더 健康하며 또 더 賢明할는지는 알 수 업스나, 그러나 是等의 自然的 不公平은 法律上의 人爲的 不公平에 依하여 더 增大하지 안으면 안되겟다는 理由는 업다. 社會主義者의 如右한 主張은 一部는 過大한 富를 除去하는 方法으로서, 又 一部는 人間의게 激烈한 勞動을 鼓舞하는 方法으로서의 效能을 誇張하나, 그러나 前者는 他의 方法에 依하여 一層 더 有效하게 成就하며 後者는 黃金崇拜를 中止하면 卽時에 願치 안는 事로 된다.

財産 私有에는 制限이 업고 盜賊은 罰을 當한다는 社會에서는 自然히 利子라는 것이 싱긴다. 何故냐 하면 許多한 經濟的 生活의 過程은 遲々한 것으로서 그것을 成就할 技倆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完成하기까지는 生活費를 가지지 못한 所以이다. 그러나 貸金의 힘은 資本家에 對하여 非常한 富와 勢力을 提供하는 것이닛가 그를 嚴重히 制限하지 안으면 一般 社會의 眞正한 自由와는 相容할 수 업다. 現代의 그 結果는 產業界에나 國際政策 上에나 雙方에 다 有害함으로써 그 힘을 制限할 若干의 手段을 講究하는 것은 殆히 絶對的으로 必要하다.